# 군 비행장·사격장 소음도 따져 2022년 피해 보상

광주 군공항 등 비행장 42곳 군 사격장 61곳 대상 국방부, 내년 11월까지 103곳 소음 영향도 조사

광주 군 공항을 비롯한 전국 100여곳의 군용 비행 장과 군 사격장의 소음 정도를 파악하는 조사가 진 행된다.

1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'군용비행장 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'에 따라 인근 주민에게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 6개월간 소음 영 향도 조사를 한다.

광주 군 공항을 비롯한 군용비행장 42곳과 군사 격장 61곳이 조사 대상이다.

조사는 소음 측정 기술 등을 보유한 용역업체에 의뢰해 실시된다.

소음 영향도는 군용항공기 운항과 군사격장 사격 훈련 때 측정된 소음도에 소음 발생 횟수와 시간대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.

군사격장의 경우 이번엔 상대적으로 소음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전차・포 사격장이 조사 대상이 다. 소총 사격장 등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할

국방부는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시기를 선정 해 최소 2회 이상 소음을 측정할 계획이다. 비행 장은 7일, 군사격장은 1일(24시간) 이상 소음을 측정하고 복합화기 사격장은 화기별로 각각 측정

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서 추천하는 주민대표와 민간전문가도 조사에 참여

이들은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설명회, 소음 측정 등의 조사 절차에 참여해 객관성과 공정성을

조사 종료 전에는 지자체 의견도 받는다. 국방부는 내년 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음대책

지역을 지정·고시하고, 2022년부터 주민에게 보상 금을 지급할 계획이다.

보상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계 부처, 국회, 지자체 등을 대상 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올해 10월까지 제

/최권일 기자 cki@kwangju.co.kr



'자전거 타기 안전도시 광주' 조성

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일 오후 '자전거 타기 안전도시 조성'을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시청에서 상무역까지 1.5km 구간을 직접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. /광주광역시 제공

### 여수산단 환경대책

#### 마스터플랜안 논의

전남도,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도

전남도는 최근 여수시청에서 '여수국가산단 민·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' 제15차 회의를 갖 고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등을 논의했다.

이번 회의에는 주민대표와 사회단체, 행정기 관, 전문가 등 20여 명의 위원과 기업체 관계자 가 참석, 여수국가산단 주변지역 '환경실태조 사, 주민 건강역학조사 및 위해성 평가 수행을 위한 마스터플랜안'과 '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방안'을 비롯한 주요 의제사항 등에 대해 구체 적으로 논의했다.

'환경실태조사, 주민 건강역학조사 및 위해성 평가 용역수행 마스터플랜안'에 대한 논의에서 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원 선정방식을 결 정, 평가항목 배점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.

용역 공고안과 제안요청서안에 대해서는 충 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해 다음 회의 안건으로 계 속 다루기로 했다.

'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·운영'과 관련 전남 도와 여수시, 범대위 등 관계기관이 T/F팀을 구성 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거 버넌스 권고안에 반영하기로 했다. '여수산단 민관협력 거버넌스 권고안'은 위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차후 논의할 계획이다.

또 거버넌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기간 을 3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하고, 다음 16차 회의 는 개최용역수행 마스터플랜안을 비롯 거버넌 스 위원회 권고안, 실무위원회 구성안, 지도·점 검인력 충원 등 논의를 위해 오는 17일 열릴 예

/윤현석 기자 chadol@kwangju.co.kr

## 광주시, 클럽·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1177곳 집합 제한

광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 19) 방역을 강화하려 2일 오후 6시부터 클럽·유흥 주점·헌팅 포차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 제한 조치 를 한다고 1일 밝혔다.

시는 제한 업소 1177곳에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게 할 방침이다.

방역 수칙은 ▲ 출입자 명부 작성·관리 ▲ 유증 상 자·고위험군 출입 제한 ▲ 마스크 착용 ▲ 방역관리

자 지정 ▲ 영업 전후 소독 실시 등이다.

시는 7일까지 해당 업소에 안내문을 전달하고 8 일부터는 공무원·경찰·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340 명을 투입해 합동 점검한다.

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사업주를 고발하고 300만

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한다.

정부의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10일 이후 도입 예정이다.

/최권일 기자 cki@kwangju.co.kr

### 7월 개교 광주 인공지능 사관학교 경쟁률 5.8대1

### 180명 모집에 1045명 몰려

광주시가 특화 인재 양성을 목표로 7월 개교하는 인공지능 사관학교에 전국에서 지원자가 몰렸다.

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교육생 지 원 신청을 받은 결과 180명 모집에 1045명이 지원 해 5.8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. 지역별로는 광주에 서 절반가량인 524명이 지원했으며, 전남(92명), 전북(31명) 등 호남권은 물론 서울(126명), 경기 (114명), 부산(22명) 등에서도 상당수 지원했다.

전공별로는 컴퓨터공학·소프트웨어·정보통신·전 자·수학·통계 등 관련 분야가 38%를 차지하는 등 이공계열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짂지만, 경영·경제・

문화콘텐츠 등 인문계열 전공자도 많았다.

인공지능 사관학교는 지난달 21일 시작된 온라인 기본 과정을 17일까지 진행한다.

이 과정이 끝나면 모집 인원의 2배수인 360명에 게 정보통신 기업에서 많이 쓰는 '프로그래머스'라 는 플랫폼을 활용한 선발 시험 응시 자격을 준다.

시는 지원동기(10%), 온라인 기본과정 수행평가 (20%), 선발시험(70%)을 종합해 합격자를 선발 하고 결과는 24일 발표한다.

지방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점을 고려해 최소 절 반은 지역 출신으로 채울 계획이다. 교육생들은 7 월부터 11월까지 현장 강의를 받게 된다.

/최권일 기자 cki@kwangju.co.kr

### 전남도 '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 홍보단' 가동

전남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COP28 유치 홍보 를 위해 1일 경남 사천 남해안 남중권 문화예술제를 시작으로 '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남해안 남 중권 유치 홍보단'을 본격 가동하고 나섰다.

'COP28 유치 홍보단'은 전국단위 행사, 축제장 등에서 주민 참여형 이벤트를 실시하고 홍보전문 인력을 배치해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.

COP28'은 지구 온도상승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 출량 감축을 위한 전 세계 국가 간의 협약으로, 198 개 회원국에서 약 2~3만 명이 참여하는 기후변화 관 련 국제회의이다.

여수, 순천, 광양, 구례, 고흥, 진주, 사천, 하동,

남해, 산청 등 남해안 주요 도시의 다중 집합장소에 홍보부스를 설치, 주민들을 대상으로 COP28 유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전남도 유치에 적극 동참하도록 할 방침이다.

이범우 전남도 기후생태과장은 "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는 세계인에게 우리 지역 천혜의 자연 자원을 널리 알릴 계기가 되고, 개최 이후에는 국제 적인 기후・환경 모범 도시로 변화되어 살기 좋은 도 시가 될 것"이라고 말했다.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'COP28 유치위원회'를 출범해 여수시를 중심으로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위해 노력중이다.

/윤현석 기자 chadol@kwangju.co.kr

### 코로나19 여파…올봄 전남 공연계 매출액 128만원 불과

코로나 19 여파로 올봄 전남지역 공연계 매출이 단 12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.

1일 전남도의회 김기태 의원(순천1·민주당)에 따르면 공연예술통합 전산망 지역별 통계(3월 1일 ~5월 27일) 분석 결과, 전남지역 공연 매출액은 128만원으로 파악됐다.

지난 3월부터 국악·연극·뮤지컬·무용·클래식·오

페라 등을 모두 합친 결과 공연 횟수는 3차례, 예매 수는 고작 32건에 그쳤다.

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액은 1/100, 공 연 횟수 1/20, 예매 수는 1/300로, 공연업계는 매 출 부진으로 인한 운영비 부족 등으로 아사 직전이 라고 김 의원은 전했다.

/김형호 기자 khh@kwangju.co.kr

